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힐링타운.

예산 대흥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빠름, 빠름, 빠름...’을 외치는 LTE급 속도가 미덕인 요즘, 늘 남들보다 뒤쳐질까 불안해하며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앉아 휴식 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는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며 ‘느리게 사는 삶’을 제시했다. 여기서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을 바로 보자는 의지이다.

충남 예산에 있는 대흥마을은 바로 느림의 미학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고마운 곳이다.

2009년 대흥마을은 신안 증도, 완도 청산, 장흥 유치, 담양 창평, 하동 악양에 이어 여섯 번째로 슬로시티로 지정되었다. 이 당시 국제슬로시티연맹 ‘올리베티’ 사무국장 일행이 대흥을 방문해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마을에 전통문화가 생활 속에 살아 있고 주민들이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뒤로는 봉수산 앞으로는 예당저수지를 품고 있는 마을의 자연 환



〈예산대흥슬로시티협의회 박효신 사무국장〉

경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필자가 슬로시티 대흥을 찾은 날은 봄을 재촉하는 보슬비가 내리는 2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바로 2009년 대흥마을의 슬로시티 지정 과정과 사업추진 준비,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이끌고 있는 박효신 사무국장(65세, 사진)을 만나기 위해서다.

대흥마을은 약 2000명이 살고 있는데, 핵심지역인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교촌리 가구수는 약 300가구, 인구수는 800명 정도이다. 그나마 슬로시티 지정 이후 이곳이 알려지면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대간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상태다. 특히 필자가 찾은 대흥 방문자센터 앞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대흥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16명 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대흥슬로시티협의회 박효신 사무국장은 이곳이 고향이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 계획에 의한 귀향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 농촌의 공동체 복원과 주민들간의 신뢰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박 사무국장은 2009년 슬로시티 지정 얘기가 들리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산군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슬로시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구체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한다.

박 사무국장은 “슬로시티 지정 이후 우선 주민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처음에는 슬로시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점점 슬로시티운동을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슬로시티로서의 사업은 2012년 1월 시작되었다고 한다. 1년 이상의 철저한 준비기간이 말해주듯 사업 실시 이후 방문객들이 10배 이상 늘어났고 대흥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마을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

슬로시티 대흥의 운영주체는 마을 주민들이 만든 마을 협의체인 예산대흥슬로시티협의회(협의회장 최동현)이다. 협의회의 주요한 안건들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이 마을에는 사무국 소속의 생태문화해설가들이 일하고 있는 점이다. 바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체험프로그램 등의 실무운영진이라고 보면 된다.





〈슬로시티 대홍 입구에 자리잡은 이정표〉



〈마을 폐건물 벽화사업〉



〈대홍향교〉



〈정돈된 느린 꼬부랑길 모습〉



〈흙물감 만들기 체험〉

박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는 절대적이다. 지난 12월 동절기 체험인 전통썰매장을 개장할 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100여개의 썰매를 직접 만들고 눈이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썰매장의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회상한다.

대홍마을은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큰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먼저 숙박시설은 민박 다섯곳,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펜션, 군에서 운영하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펜션, 그밖에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 등 다수가 있다. 그리고 체험장은 협의회가 운영하는 달팽이 자연학교, 달팽이 미술관, 짚공예 체험장, 힐링 체험장 등이 있다.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이 바다처럼 넓게 펼쳐진 예당저수지를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물고기 전문점들이 즐비해 매운탕, 어죽 등은 인기가 높다.

특히, 귀농귀촌/달팽이자연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소위 잘 나간단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태문화체험으로 흙물감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는 흙물감 만들기와 그리기 체험, 숲체험, 대홍의 역사와 문화체험, 대홍에서의 하루 미니 여행복 만들기 체험, 자연밥상 체험 등이 인기가 있는 체험이다. 그리고 힐링체험으로 하루체험, 1박2일 행복만들기 체험, 사진과 바느질을 배우면서 힐링하는 창작치유 체험 등이 있다.

필자는 박 사무국장에게 그림의 미학을 만끽할 추천코스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당일 여행으로 오시면 느린 꼬부랑길을 걷거나 봉수산(484m) 정상에 올라 백제 유적지인 임존성을 본 후 예당저수지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길 권한다.”면서 “마을 문화해설사로부터 대홍의 역사와 문화를 듣거나 생태문화해설가와 함께 갖가지 체험을 하면서 즐기실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다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흙집이나 시골민박집에서 하루를 머물며 느리게 사는 생활을 경험해보면 더욱 가치있고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뜸해주었다.

지난해 체험 예약 방문자수는 약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터 방문자는 약 7000~8000명 정도라고 한다. 바로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의좋은 형제 장터 얘기다.

의좋은 형제 장터는 한 달에 한 번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이 장터에서는 농산물에 한해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판매하는데 도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놀이마당에서 우리 전통놀이를 이벤트로 진행하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이 장터는 겨울에는 열리지 않고 4월부터 다시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의좋은 형제’를 바탕으로 한 ‘옛이야기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대흥마을은 다른 체험마을과는 달리 4계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박 사무국장은 “체험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바를 한 발 앞서서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오시는 분들의 연령, 성별, 여행목적 등에 따른 맞춤형 체험이기 때문에 매년 발전하고 진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흥마을에는 짚공예 명인들로 유명하다. 이 마을의 짚공예품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배우러 오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서 일년에 2~3차례 전시회도 열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슬로라이프 체험장인 달팽이 미술관이 생기면서 짚공예 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작업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상시적 작품 전시도 가능해졌다.

2013년, 이제 대흥마을은 누구나 인정하는 힐링타운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사실 이미 진행중이다. 일명 ‘힐링 체험’, ‘창작 힐링’으로 불리는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 사무국장은 체험마을이든 슬로시티든 무엇보다 창의성을 성공의 가장 큰 무기로 꼽았다. “처음 슬로시티 사업을 준비할 때, 관 주도의 규정에 얽매인 사업만 준비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냥 마을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열린 커뮤니티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지원받은 사업비로 건물 몇 개 짓는 건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주체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느린 꼬부랑길 이정표〉



〈의좋은 형제 장터의 모습〉



〈창작 힐링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느질교육〉



〈짚공예품 판매〉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대흥마을은 마을주민의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느린 꼬부랑길을 느리게 걸어보았다. 대흥동헌 · 이성만형제효제비 · 대흥향교 등의 역사, 마을의 자연, 그리고 소박한 삶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 모두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슬로시티 대흥. 한 박자의 숨이 삶의 행복으로 실현되는 곳이다.

[예산 대흥마을...]



〈얼어버린 예당저수지를 마을주민이 걷고 있다〉

● 찾아가는 길

슬로시티 대흥은 자가용의 경우, 당진대전고속도로 예산수역사IC 혹은 신영IC로 나와야 하고, 버스는 예산종합터미널, 열차는 예산역이나 천안아산역을 이용해야 한다.

- ▶ 주소 :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84-5
(예산대흥슬로시티협의회, T.041 331 3727)
- ▶ 홈페이지 : www.slowcitydh.com

● 주변 관광지

- ▶ 예당저수지 : 중부권 최고 낚시터 / 조각공원 등 산책코스로도 유명 / 유명한 민물고기 전문점들이 즐비
- ▶ 봉수산자연휴양림 : 천연림과 인공림의 조화 / 1시간부터 3시간 코스 등 다양한 등산로
- ▶ 수역사 대웅전 : 국보 제49호 / 동선의 배치와 뛰어난 구조미가 돋보이는 한국선종의 수도장
- ▶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김정희 선생의 고택